

Wap-bap, ba-da-di-da-da

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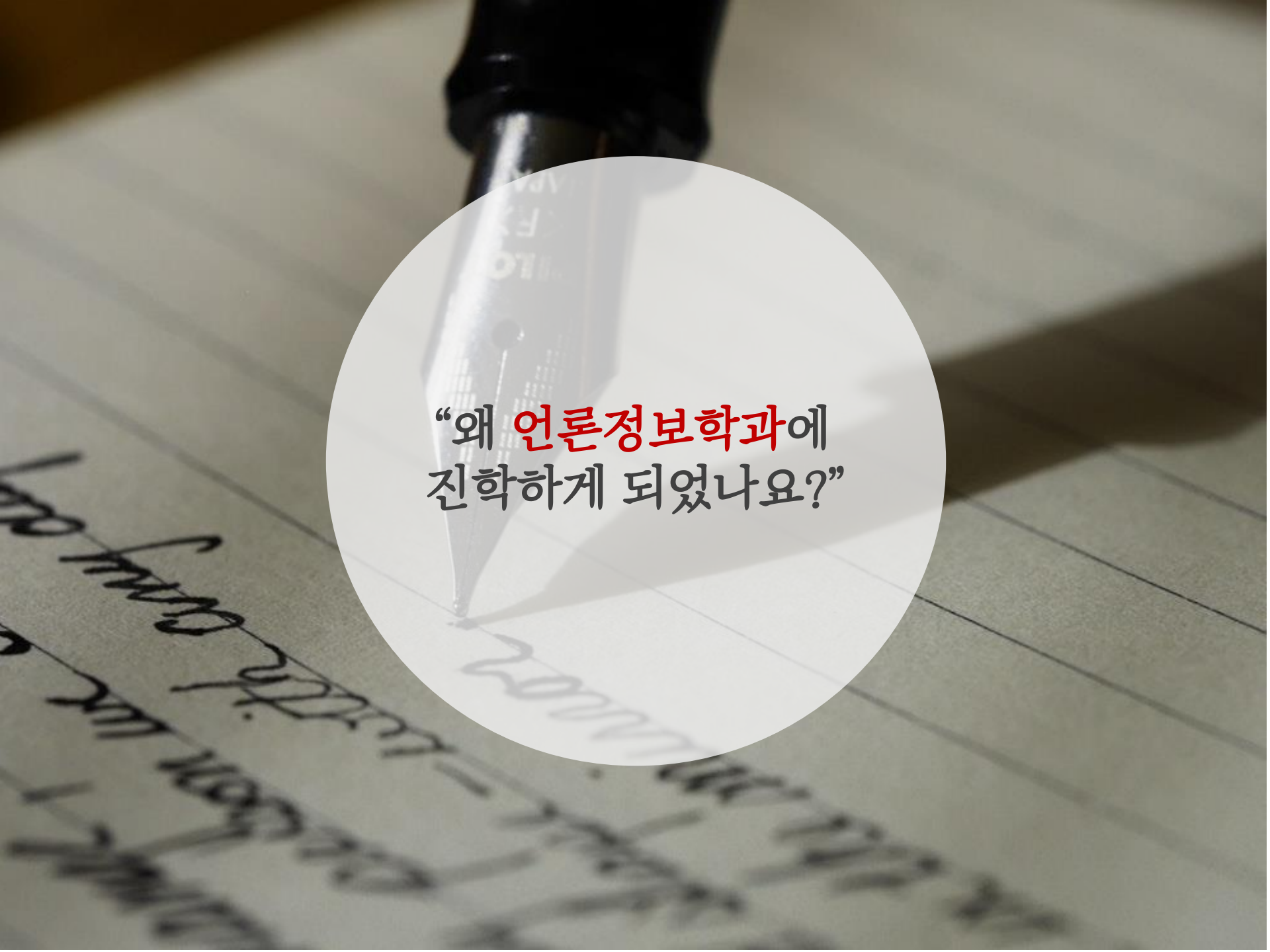
Almanach
Aufmerksamkeit der
Forschungsbereitschaft

경희대학교

언론정보학과
소프트웨어융합학과

김동구



A close-up photograph of a fountain pen writing on a document. The pen is black with a silver nib. The document has horizontal lines and some handwritten text in cursive. A large, semi-transparent white circle is overlaid on the center of the image, containing the text "왜 언론정보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나요?".

“왜 **언론정보학과**에
진학하게 되었나요?”



기자가 멋있어 보였습니다.

- 사회, 공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.
- 공무원은 시키는 것만 해야할 것 같았고,
- 사회선생님은 재미 없을 것 같았고,
- 시민단체에서 일하기엔 돈을 못 벌 것 같았어요.

- ‘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(김진명)’라는 책을 읽고,
- 기자라는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.

- ‘아 이거다!’
-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동가능하며,
- 사회, 공익과 관련되어 있고,
- 명예, 돈도 적당히 있는
- 그런 직업이 바로 기자였죠.

- 무엇보다도 마음에 안 드는 사회문제를
- 개선하기 위한 직업으로는
- 기자가 제일 적절하다 싶었어요



A photograph of a person pushing a cart heavily loaded with cardboard boxes and papers. The cart is on a paved street, and the background shows a brick building with utility meters and some outdoor plants. The scene is somewhat cluttered, suggesting a busy or resource-poor environment.

폐지 줍는 어르신



신문, 방송매체의 힘을 믿었습니다.

- 제 고향은 경북 구미 산업도시입니다.
- 산업역군으로 힘써오신 7~80년대 어른들이 많이 사십니다.
- 하지만 사회로부터 외면받아, 지금은 폐지를 주으시며 힘겹게 사십니다.
- 저임금, 저곡가 정책으로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세대.
- 이 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.
- 방송, 신문으로 사회를 고발하면 쉽게 사회를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.

막상 단상에 올라와보니
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좀 다르더라고요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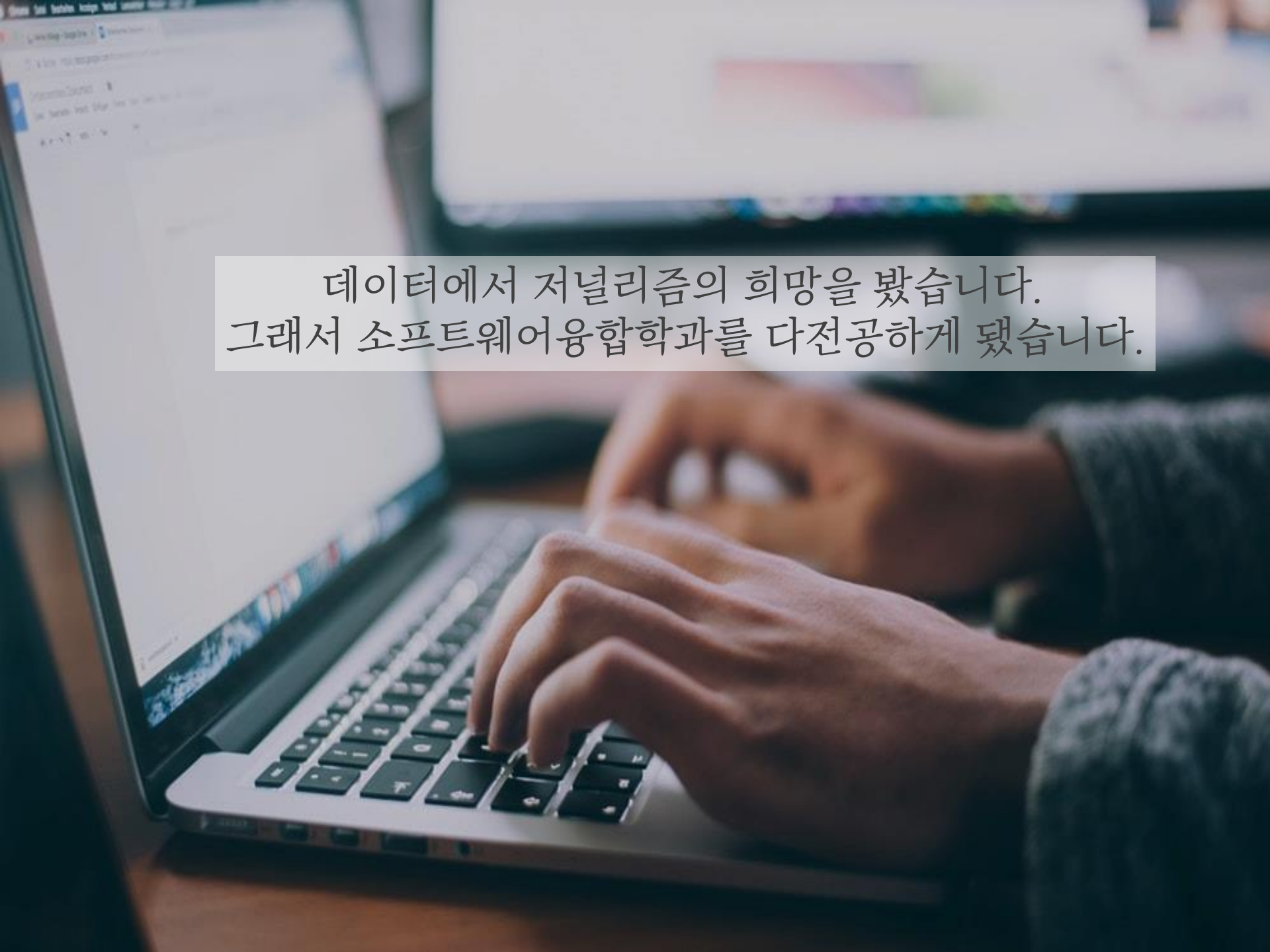
신문, 방송의 현실

- 기자가 되기 힘들다.
- 생각보다 기자가 큰 힘이 없다.
- 기자를 영웅시해왔지만, 직접 만나보니 일개 월급쟁이일 뿐이었다.
- 신문, 방송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.
- 새로운 미디어(매체)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.
- 쓰레기 같은 뉴스가 너무 많다.



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하지?

- 진실을 분간해낼 능력이 필요하다.
- 더 파급력 있는 새로운 저널리즘을 연구하자.
- 통계로 이야기하던 기자도 생각해봤었는데?
-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다.
- 빅데이터로 인생을 풀어가도 좋겠다.
- 인생을 담는 것이 저널리즘.
- 데이터 저널리즘을 해보자!
- '석면쇼크, 부산이 아프다'(<http://shock.busan.com/>)
- 위의 기사가 너무 재밌다!


A close-up photograph of a person's hands typing on a laptop keyboard. The person is wearing a grey sweater. The laptop screen is visible in the background, showing a blurred interface. A semi-transparent white text box is overlaid on the center of the image.

데이터에서 저널리즘의 희망을 봤습니다.
그래서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다전공하게 됐습니다.



데이터, 코딩, 저널리즘을 계속 공부하다보니..

- SBS 마부작침, 한국경제 뉴스레빗 등 기존 언론사에서 다루는 수준은 다전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.
- 기존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각화하는 수준으로만 끝내는 것은 재미 없어 보였습니다.
- 점점 저널리즘보다는 '미디어 생태계'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
- 이제는 방송, 신문처럼 내용을 일방적으로 송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, 독자들의 반응(댓글, 공감/비공감 클릭, 머무는 시간)등을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.
- 지상파, 조중동, 경한으로 대표되던 미디어 구조가 해체되고 있습니다. 네이버, 유튜브, 다음 등 새로운 IT기업들이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
- 이 새로운 전환점에서 독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, 기존 및 신규 미디어들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궁금합니다.
- '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'비밀' 캐넌 보고서' (<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4241>) 같은 연구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.

A photograph of a busy city street, likely in London, with a large crowd of people. Many people in the foreground are holding up their smartphones to take pictures or videos. In the background, a parade is taking place with people in red and white uniforms. The street is lined with multi-story buildings, and a red sign for 'LONDON'S' is visible on the right. A semi-transparent white box is overlaid in the center of the image, containing the Korean text '앞으로는...?'.

앞으로는...?




자연어처리를 중점적으로...

- 독자(한국인)들의 반응이 제일 궁금해서 자연어처리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.
- 일부 시사평론가에 따르면, 뉴스의 시공간 소멸(모바일로 실시간 반응이 가능해짐)하면서 독자들의 감정이 더 극화되었다고 합니다.
- 특히 요즘 뉴스는 SNS 상에서 공유되고, '소비(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 봄)'됩니다.
- 내가 알고 싶은 진실만 찾고,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만 모이려고 합니다.
- 카카오톡 단톡 기능이 생긴 전후 댓글을 비교해서 감정이 더 극화되었는지 분석해보고 싶습니다.
- 저널리즘은 '정의'를 추구하는 것이 맞지만, 매체도 영리를 추구하는 '기업'입니다.
- 이런 상황에서 매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토론하는 자료로 활용해보고 싶습니다.

현직자를 찾아서...

- 한국언론진흥재단, 미디어오늘 등 미디어 생태계 연구원분,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생 등 기존에 없던 저널리즘 연구를 하시는 분을 만나 방향성을 설정하고 싶습니다.
- 일단은 한국경제 데이터저널리즘 기자이자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생인 분을 만나볼 예정입니다.




브런치:

<https://brunch.co.kr/@ehdrn463>

깃허브:

<https://github.com/ehdrn463>



감사합니다